

# 중국어 다의성 양태조동사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 희곡 『雷雨(뇌우)』를 중심으로

왕군(한국의국어대학교)

## 1. 서론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화자의 태도, 판단, 의지, 확실성과 같은 대인적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의미 체계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범주가 바로 양태(modality)이다(서수경, 2010; Halliday & Matthiessen, 2014). 양태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Lyons, 1977, p. 452)를 뜻하며 언어마다 그 실현 방식이 상이하다.

중국어에서 양태는 주로 양태조동사(1)를 통해 실현되는데 그중에서 ‘要’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의미가 가장 복잡한 양태조동사로 꼽힌다(郭昭軍과 尹美子, 2008). 장경희(2017, p. 129)는 한중 추측 표현의 대응 양상 연구에서 한국어 추측 표현인 ‘-(으)ㄴ 것이다’가 의무의 의미를 지닌 ‘要’로 번역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두 언어 간의 비대칭적 대응은 반대로 중국어의 ‘要’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도 다층적인 양태 의미로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1) 현대 중국어에서 양태조동사는 또한 능원동사(能願動詞), 정태동사(情態動詞), 양태동사, 양상조동사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예문 1>

- (가) 他要学游泳。
- (나) 그는 수영을 배우려고 한다.
- (다) 그는 수영을 배워야 한다.

<예문 1가>에서 ‘要’가 주어 ‘他(그)’의 의지나 계획을 나타낼 경우 한국어로는 <예문 1나>와 같이 ‘-(으)려고 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반면 해당 ‘要’가 규범적 요구, 즉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맥락이라면 <예문 1나>로 번역하면 오역이 되며 <예문 1다>처럼 ‘-아/어/여야 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이처럼 다의성 양태조동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는지는 해당 표현이 위치한 문장의 맥락과 장르에 의해 결정된다(邢嘉鋒과 王曉靜, 2015, p. 34). 즉, 동일한 ‘要’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태 의미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가장 먼저 맥락 속 ‘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는 교착어이기에 양태 표현의 실현 방식이 중국어보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이 풍부하게 발달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장경희, 2014, p. 46). 따라서 파악된 원문의 양태 의미를 도착어인 한국어의 어떠한 표현으로 실현할 것인지 역시 번역의 주요한 과제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예문 2>

- (가) 明天要下雨。
- (나) 내일 비가 오겠다.
- (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 (라) 내일 비가 올 모양이다.
- (마)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 (바) 내일 비가 온다.

<예문 2가>의 ‘要’는 화자가 내일의 날씨에 대해 예측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예문 2나-마>처럼 다양한 추측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고 <예문 2바>처럼 무표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떠한 표현으로 번역되는지에 따라 번역문이 전달하는 확실성의 정도

와 양태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희곡과 같이 대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 작품에서는 ‘要’를 비롯한 양태 표현이 인물의 심리 상태, 발화 태도, 서사 전개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번역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도착어로 재현하느냐에 따라 작품 해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학계의 ‘要’ 연구는 언어학, 교육학 및 대조 분석에 초점을 맞출 뿐 번역학적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sup>2)</sup> 중국 학계의 연구 또한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중영 양태 번역 연구를 살펴보면 번역 과정에서 ‘要’의 양태 의미가 약화 내지 생략되거나(田緒軍, 2022), 문학 작품 내 위계 및 체면 등 화용적 요인에 의해 완곡하게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廉張軍, 2016). 양태 실현 방식이 유사한 중영 번역에서도 이처럼 화용적 굴절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양태를 주로 문법적 수단으로 실현하는 한국어 번역은 언어 간 구조적 간극까지 더해져 그 층위가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용적 맥락 속에서 ‘要’가 한국어로 실현되는 양상 및 번역문 내 양태 의미의 재현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화용적 의사소통의 모델인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적용하여 다의성 양태조동사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귀자오권과 인메이쯔(郭昭軍과 尹美子, 2008, p. 39)는 ‘要’가 희곡 텍스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의미 유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 희곡 『雷雨』를 중심으로 양태조동사 ‘要’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나타나는 실현 양상을 고찰하고, 특히 ‘要’의 다의성에 따른 번역 대응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번역문에서 재현된 양태 의미가 원작 등장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극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다의성 양태조동사 ‘要’의 양태 유형과 세부 의미를 살펴보고 ‘要’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

2) 앞서 언급한 장경희(2017)의 연구는 한-중 번역 텍스트를 대조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했을 뿐, 본격적인 번역학적 관점에서 양태 번역 양상을 다룬 연구는 아니다.

의 분석 틀인 적합성 이론을 검토하고 이 이론이 양태 표현 번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작품을 소개하고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정량 분석을 통해 ‘要’의 한국어 실현 방식과 양태 유형에 따른 한국어 대응 번역 양상의 차이를 파악한 뒤, 정성적 사례 분석을 통해 번역문에서 재현된 양태 의미가 등장인물의 성격 형상화와 극적 효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학술적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要’의 양태 유형과 의미

다의성 양태조동사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문이 지닌 다층적인 양태 의미를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要’의 양태 유형과 세부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그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양태 연구에는 전통적인 이분법<sup>3)</sup> 외에도 파머(Palmer, 2001)의 삼분법<sup>4)</sup>,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이하 SFL)의 사분법<sup>5)</sup> 등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의도’와 ‘의지’의 의미 영

3) 전통적인 분류에서는 양태를 크게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관련된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와 비인식적 양태, 즉 근원양태(root modality)로 구분한다( Coates, 1983).

4) 파머(2001)는 양태를 명제에 대한 지식 및 믿음과 관련된 인식양태, 규범적 의무나 허락을 나타내는 당위양태(deontic modality), 그리고 행위 주체의 내적 능력이나 의지와 관련된 동적양태(dynamic modality)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5) SFL에 따르면 양태 유형은 정보 명제(proposition)에서 확률(probability)과 빈도(usuality)로 나타나고, 행위 명제(proposal)에서는 의무(obligation)와 의향(inclination)의 정도로 나타난다(Halliday & Matthiessen, 2014).

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엄너, 2010, p. 42)을 고려할 때, 이분법은 이를 하나의 근원양태 범주로 묶어 처리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SFL의 사분법은 ‘빈도’처럼 ‘要’의 실제 화용적 쓰임과 부합하지 않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번역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분류법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의성을 지닌 ‘要’의 양태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삼분법 체계를 채택한다. 실제로 ‘要’의 양태 유형을 삼분법으로 고찰한 선행 연구는 귀자오권과 인메이쯔(2008), 김혜경(2012), 박성하(2015), 평리전(彭利貞, 2005) 등이 있다. 즉,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要’가 동적양태, 당위양태, 인식양태 등 세 가지 양태 범주에서 기능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 하위 범주의 명칭이나 해석에 미세한 차이는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要’의 양태 유형과 세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첫째, 동적양태의 ‘要’는 기본적으로 주어의 ‘바람’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바람’과 ‘희망’, ‘의도’, ‘의지’ 등으로 혼용해 왔으나 결국 그 핵심 속성은 주어의 ‘바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성하(2015)의 분류 체계에 따라 동적양태 ‘要’의 기본 의미를 ‘바람’으로 보고 이를 다시 ‘의도’와 ‘의지’로 세분화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단순한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주체의 강한 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형태론적으로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한 번역에서는 동적양태 ‘要’가 구체적으로 ‘의도’인지 ‘의지’인지 구분해야 한다.<sup>6)</sup>

둘째, 당위양태의 ‘要’는 공통적으로 ‘의무’를 나타낸다. 귀자오권과 인메이쯔(2008)는 당위의 근거 혹은 출처에 착안하여 이를 ‘약한 의무’와 ‘강한 의무’로 세분화하였다. ‘약한 의무’는 객관적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행위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를, ‘강한 의무’는 화자나 일정한 사회 규범이 행위 주체에게 동작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박성하(2015)는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전자를 ‘필요’, 후자를 ‘필수’로 구체화하였다. 본

6) 동적양태 ‘要’의 ‘의도’와 ‘의지’는 박성하(2015)가 제시한 ‘要’의 생략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要’를 생략했을 때 문장이 어색해지면 ‘의지’로, 생략해도 무방하면 ‘의도’로 간주한다.

연구는 이러한 의미 층위의 차이가 한국어 번역 시 종결어미의 완곡함이나 명령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당위양태 ‘要’를 ‘약한 의무’와 ‘강한 의무’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인식양태의 ‘要’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과 판단을 나타낸다. 김혜경(2012)과 평리전(2005)은 ‘要’가 가능성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 사용에서 그 의미 강도는 필연성에 더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성하(2015)는 양태 의미의 문법화 경로를 7) 근거로 이를 ‘필연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인식양태 ‘要’는 객관적 사실의 단정보다는 화자의 인식에 근거한 추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관적 추측’에 해당하지만, 그 추정의 확신도가 비교적 높아 필연성에 가깝게 인지되는 특징이 있다. 세부 유형에 있어 박성하(2015)는 상식, 가능, 추론, 예측으로 세분화한 반면, 귀자오권과 인메이쯔(2008)는 이를 상식, 인식가능, 예측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인식가능’은 박성하(2015)의 ‘가능’과 ‘추론’을 포괄하는 상위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예문 2>에서 확인했듯 한국어는 추측에 관한 양태 표현이 고도로 분화되어 발달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인식양태 ‘要’의 확실성 정도를 ‘필연성’으로 보고 그 의미 유형을 ‘주관적 추측’으로 규정하여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要’의 양태 유형과 세부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要’의 양태 유형과 의미

양태 유형	양태 의미
동적양태	바람: 의도, 의지
당위양태	의무: 강한 의무, 약한 의무
인식양태	주관적 추측 (필연성)

7) 박성하(2015, p. 30)에서 제시한 두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중국어에서 ‘要’는 당위양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데 당위양태에서 인식양태로의 의미 확장이 가장 보편적인 경로라는 점이다. 둘째, 동적양태는 인식양태로 직접 발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위양태로 발달하는 경향이 더 우세하다는 점이다.

## 2.2 ‘要’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

한중 양태 대조 연구 가운데 ‘要’를 다룬 대표적 논저로는 엄녀(2010), 왕효단(2020), 장경희(2014, 2017), 정미홍(2021), 주림(201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분석 기준이 상이하여 통일된 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번역 연구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원문 의미의 정밀한 판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의미 분류를 토대로 ‘要’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의도와 의지의 의미를 지닌 동적양태의 ‘要’이다. 엄녀(2010)는 ‘要’가 의지 의미일 때 ‘-(으)르 것이다’, 의도 의미일 때 ‘-(으)려고 하다’와의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논의가 문법적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양태 어미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장경희(2014)는 의지 의미의 ‘要’가 ‘-(으)르 것이다’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겠-’, 종결어미 ‘-(으)르게’, ‘-(으)르래’, ‘-아/어/여야지’ 등과도 대응될 수 있음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왕효단(2020)은 ‘-(으)려고 하다’를 의지 영역에 포함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는 주어의 강한 결심인 ‘의지’보다는 행위의 의향을 나타내는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도’를 나타내는 ‘要’는 ‘-(으)려고 하다’와 대응시키고, ‘의지’를 나타내는 ‘要’는 ‘-겠-’, ‘-(으)르 것이다’, ‘-(으)르게’, ‘-(으)르래’, ‘-아/어/여야지’와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둘째,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당위양태의 ‘要’이다. 주림(2014)은 ‘要’가 ‘-아/어/여야 하다/되다’와 포괄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았다. 반면 왕효단(2020)은 의무의 강도를 구분하여 강한 의무의 ‘要’는 ‘-아/어/여야 하다’로, 약한 의무의 ‘要’는 ‘-이/가 필요하다’, ‘-(으)르 필요가 있다’ 등으로 대응된다고 제시하였다. 앞서 2.1절에서 논의했듯이 당위양태의 ‘要’는 강한 의무와 약한 의무로 세분되므로 대응 표현 또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왕효단(2020)의 견해를 수용한다. 다만 ‘강한 의무’의 경우, 일반적인 표지인 ‘-아/어/여야 하다/되다’ 외에 ‘-아/어/여야지’를 추가하고자 한다. ‘-아/어/여야지’는 ‘-아/어/여야 하지’의 축약형으로서 의무의 속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재연, 2006, p. 256).

셋째, 주관적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要’이다. 장경희(2017)는 병

럴 코퍼스를 구축하여 실제 번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추측 양태 표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要’는 ‘-겠-’, ‘-(으)르 것이다’, ‘-(으)르 것 같다’, ‘-(으)르 듯하다’, ‘-(으)르 터이다’ 등 다섯 가지 표현과 대응한다. 확실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 표현 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나 병렬 코퍼스에 기초한 연구 결과인 만큼 ‘要’의 한국어 번역 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경희(2017)의 결과를 준거로 삼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要’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을 체계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要’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

‘要’의 양태 유형과 의미 분류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	
양태 유형	양태 의미	실현 방식	세부 표현
동적양태	바람: 의도	문법적 언어	-(으)려고 하다
		선어말어미	-겠-
	바람: 의지	종결어미	-(으)르게
			-(으)르래
			-아/어/여야지
	문법적 언어	-(으)르 것이다	
당위양태	강한 의무	종결어미	-아/어/여야지
		문법적 언어	-아/어/여야 하다/되다
	약한 의무	문법적 언어	-이/가 필요하다
			-(으)르 필요가 있다
인식양태	주관적 추측 (필연성)	선어말어미	-겠-
		문법적 언어	-(으)르 것이다
			-(으)르 것 같다
			-(으)르 듯하다
			-(으)르 터이다

## 2.3 적합성 이론과 양태 표현 번역

전통적으로 양태의 대인적 의미 분석에는 할리데이(Halliday)의 SFL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어휘 중심의 중영 양태 번역 연구에서도 SFL의 양태값(value) 대조가 유용한 척도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SFL은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법 구조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중한 번역의 화용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한국어의 양태는 어미, 부사, 문법적 언어 등 매우 복잡한 문법적 수단으로 실현되어, 개별 표현의 구체적인 양태값에 대해서는 SFL에 기반한 정량적 기준이나 학계의 합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 언어의 표면적인 양태값을 기계적으로 대조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넘어, 구조적 간극이 큰 맥락 속에서 번역자가 원문의 대인적 의미를 어떻게 추론하고 도착어 체계로 재현하는지 그 ‘인지적 선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성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86/1995)의 적합성 이론은 의사소통을 화자가 제공한 자극을 바탕으로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명시-추론(ostensive-inferential)’ 과정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발화에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전제되어 있고, 청자는 발화의 언어적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표상(semantic representation)’을 구성한 뒤 자신의 인지 환경에서 가능한 해석들 가운데 화자 의도에 맞는 한 가지 맥락(context)<sup>8)</sup>을 선택하는 인지적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을 성립시킨다. 이 과정에서 청자의 인지 환경에 일어나는 변화를 ‘맥락적 효과(contextual effects)’, 이를 위해 투입되는 인지적 수고를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이라고 한다. 적합성은 맥락적 효과가 클수록, 그리고 처리 노력이 적게 들수록 높아진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사소통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맥락적 효과를 얻는 ‘최적의 적합성(optimal relevance)’을 추구하는 인지적 행위이다.

구트(Gutt, 2010)는 번역을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으로 보고 적합성 이론을 번역학에 도입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관계를 ‘해석적 유사성

8) 여기서 ‘맥락’이란 청자의 인지 환경을 구성하는 청자의 세계관, 즉 청자가 발화를 해석할 때 동원하는 세상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가리킨다.

(interpretive resemblance)’으로 설명하였다. 해석적 유사성이란 출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독자와 도착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의 독자가 갖게 되는 텍스트의 해석적 효과가 동일하거나 충분히 유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양태 표현 번역에 있어서 해석적 유사성은 ST의 양태 표현에 담긴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심리적 상태가 단순한 형태적 대응을 넘어, TT에서도 ST과 상응하는 수준의 인지적, 화용적 효과를 산출하도록 재현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완벽한 동일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번역자는 가능한 한 유사한 효과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李寅과 羅選民, 2004, p. 40). 따라서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번역이란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처리 노력을 최소화하고 맥락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최적의 적합성을 갖춘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번역자의 목표는 이러한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번역자는 ST의 수신자이자 TT의 발신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번역자는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도착어 독자의 인지 환경을 고려하여 그들이 불필요한 노력 없이 의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중개해야 한다. 이때 번역자 역시 일정한 ‘처리 노력’, 즉 ‘번역자의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효과의 등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번역자가 일반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한 양태 번역에서 특별한 맥락적 효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의미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응 양태 표현으로의 번역이 번역자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탐색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원문의 명제적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인지적 기본값(cognitive default)<sup>9)</sup>’으로 작

9) ‘인지적 기본값’이란 대화나 문장 해석에서 사람이 별도의 복잡한 추론을 크게 들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기본 해석을 의미한다(Jaszczolt, 2006). 본 연구에서 이 용어는 번역자가 원문 표현을 접했을 때 심층적인 맥락적 추론에 앞서 관습적, 어휘적 대응 관계에 의해 가장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1차 번역 후보군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응 양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거나 이를 생략하는 실현 방식은 번역자가 구체적인 맥락을 재해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추가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별한 화용적 요인이나 강한 맥락적 제약이 개입하지 않는 한, 번역자는 본능적으로 처리 노력이 큰 비대응 방식보다는 경제적인 대응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양태조동사 ‘要’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번역자가 인지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식은 물론, 희곡 특유의 극적 효과와 인물 성격을 살리는 ‘맥락적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화용적 처리를 거쳐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다의성 양태조동사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중국 현대 희곡의 거장 차오위(曹禺)의 대표작 『雷雨』 원문과 오수경이 번역한 2016년 한국어 번역본 『뇌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0)</sup> 분석 대상은 작품의 대화문에 나타난 ‘要’ 사례로 한정하였다. 다만 ‘要’의 부정형은 실현 양상이 비대칭적이며(郭昭軍과 尹美子, 2008, p. 36),<sup>11)</sup> ‘就要’는 양태 분류 기준이 모호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34년에 발표된 차오위의 처녀작 『雷雨』는 중국 근대극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조우(周) 씨와 루(魯) 씨 두 가문의 얽히고설킨 8명의 인물 관계를 단 하루라는 시간적 배경 속에 긴박하게 압축해

10) 본 연구의 ST(2014년 인민문학출판사 판본)와 TT의 저본(2008년 인민문학출판사 판본)은 모두 원작의 초판본을 근거로 하여 텍스트 내용이 동일하다.

11) 양태조동사 ‘要’의 부정 형식은 단순한 ‘不要’가 아니라 양태 기능에 따라 ‘不必’, ‘不會’, ‘不可能’ 등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냈으며 긴 설교 없이 잘 다듬어진 유창한 대사만으로 극을 전개하는 특색을 지닌다. 특히 이 작품의 극적 긴장감은 엄격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첨예한 계급 갈등, 그리고 억압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적 권위와 자본가 계급의 상징인 조우푸위안(周朴園)은 아내 조우판이(周繁漪)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거나 아들 조우핑(周萍)을 엄격하게 훈계하는 등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위계를 행사하며 노동자 계급인 루다하이(魯大海)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계모인 조우판이가 전처의 아들 조우핑을 사랑하는 등 패륜적이고 복잡다단한 애증 관계가 극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러한 지배와 복종, 억압과 저항의 관계망 속에서 인물 성격의 다면성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대사 중심의 서사 전개와 인물 간 갈등의 급격한 전환이 빈번한 장르적 특성상 텍스트 내에는 인물들의 태도나 사건에 대한 확실성, 심리적 압박 등을 드러내는 양태 표현이 대량으로 사용된다. 실제 필자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극 중에는 ‘要’, ‘會’, ‘願意’, ‘能’, ‘想’, ‘可以’, ‘得(d i)’, ‘敢’ 등 다양한 양태조동사가 등장하며 그중 ‘要’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맥락에 따라 가장 폭넓은 양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要’가 지닌 다의적 양태 의미는 극 중 인물 간의 위계 및 권력 관계와 결합하여, 한국어 번역 시 화용적 굴절이나 미세한 뉘앙스 누락 등의 난점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해당 텍스트는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최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TT로 2016년 민음사에서 출판된 오수경의 번역본 『너우』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판본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번역본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것으로 현대 한국어의 어법과 화용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세계문학전집』에 수록될 만큼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 오늘날의 한국 독자들에게 수용되는 ‘要’의 실제적인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본 작품은 국내에서 수차례 공연된 바 있으며, 해당 번역본은 희곡 특유의 구어적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雷雨』에서 나타난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ST와 TT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먼저, ST와 TT의 대화 부분을 전자 텍스트화한 후 ST를 기준으로 문장 단위 병렬 정렬을 수행하였다. 정렬된 자료에서 긍정 형식의 ‘要’를 1차 추출한 뒤, 양태조동사 ‘要’와 본동사 ‘要’를 구분하고 비양태적인 사례와 ‘就要’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0건의 양태조동사 ‘要’를 추출하였다.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양태조동사 ‘要’를 <표 2>에 제시된 대응 한국어 양태 표현으로 옮기는 것은 번역자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응 번역이 번역자의 ‘인지적 기본값’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실제 번역 양상에서 ‘要’를 대응 양태 표현으로 번역한 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그 외의 실현 방식은 번역자의 처리 노력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 번역자가 추가적인 인지적 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는 더 큰 맥락적 효과를 통해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화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다.

먼저 정량 분석에서는 추출된 150건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범주화하고 그 분포 현황을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서 제시한 적합성 이론 기반의 가설을 검증한다. 나아가 2장에서 제시한 ‘要’의 세 가지 양태 유형과 세부 의미에 따라 도출된 번역 범주 내에서 각각 어떠한 분포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한국어 양태 표현 간의 미세한 차이를 정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도착어의 실현 방식과 구체적인 세부 표현을 층위별로 나누어 그 빈도와 패턴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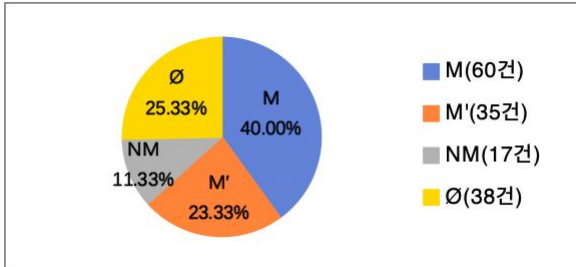
그러나 정량적 수치만으로는 번역자가 최소 노력의 원칙을 깨고 다른 실현 방식을 선택한 화용적 요인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정성 분석에서는 적합성 이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번역 사례를 심층 고찰하며, 번역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 번역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번역자의 화용적 선택이 인물의 성격 형상화와 극적 효과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규명할 것이다.

## 4. 분석 및 논의

### 4.1 번역 양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

본 연구는 ST에서 총 150건의 양태조동사 ‘要’를 추출하였으며 구체적인 한국어 번역 양상 분포는 아래 <그림 1>과 같다.<sup>12)</sup>

그림 1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 분포



<그림 1>이 보여주듯이 ST의 양태조동사 ‘要’는 TT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M으로 번역된 경우가 40.00%(6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생략(Ø)이 25.33%(38건), M'이 23.33%(35건)로 그 뒤를 이었으며, NM은 11.33%(17건)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정한 ‘대응 번역(M)의 압도적 우위’ 가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번역자가 추가적인 탐색 없이 인지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기분값’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지만 그 비중은 40.00%에 그친 반면, 오히려 생략(Ø), M', NM 등 상대적으로 번역자의 처리 노력이 더 요구되는 실현 방식의 총합이 60.00%에 달해 실제

12)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표 2>에서 제시한 ‘要’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은 M, 그 밖의 한국어 양태 표현, 즉 전이된 양태 표현은 M', 비양태적 표현은 NM(non-modal expression), 생략은 Ø로 표기한다.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총합이 100%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번역에서는 M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번역자가 ‘要’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단순히 비용 최소화만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M만으로는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기 어렵거나 도착어 맥락에서 부자연스러울 때 번역자는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투입해서라도 TT의 독자가 얻을 수 있는 맥락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즉, M'와 NM을 통해 대안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원문의 양태 의미가 주변 맥락으로 충분히 전달될 때 과감히 표지를 제거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모두 번역자가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인지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번역자는 텍스트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실현 방식을 택하는 능동적인 중개자임을 시사한다. 한편, M과 M'의 합계가 63.33%에 이른다는 점은 ‘要’를 번역할 때 형태나 강도가 변할지언정 여전히 ‘양태 표현’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층위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시적인 번역 양상 분포에 이어 본 연구는 양태조동사 ‘要’의 다의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 세부적인 패턴을 분석하였다. 즉, 원문 ‘要’의 세 가지 양태 유형에 따라 한국어 대응 번역 양상과 실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빈도와 패턴은 <표 3>과 같다.

표 3  
‘要’의 양태 유형별 한국어 번역 양상과 사용 빈도<sup>13)</sup>

분류	‘要’의 양태 유형	한국어 번역 양상		빈도
		실현 방식	세부 표현	
M→M	동적양태	선어말어미	-겠-	11
		종결어미	-아/어/여야지	2
			-(으)르게	1
			-(으)르래	1
			문법적 연어	-(으)려고 하다
		-(으)르 것이다		9

13) M→M'의 당위양태 및 M→NM의 인식양태는 번역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당위양태	종결어미	-아/어/여야지	1
		문법적 연어	-아/어/여야 하다/되다	11
	인식양태	선어말어미	-겠-	1
		문법적 연어	-(으)르 것 같다 -(으)르 것이다	4 1
M→M'	동적양태	연결어미	-(으)러	4
		문법적 연어	-아/어/여야겠다	12
			-고 싶다	8
			-아/어/여야 하다/되다	9
	인식양태	문법적 연어	-(으)려나 보다 -(으)르지도 모르다	1 1
	M→NM	동적양태	관형사형 ‘-(으)르’	-할, -상의드릴 등
청유형 어미 ‘-자-’를 활용하는 간접 인용문			-자고	1
			-자니	1
사역 구문			-게 하다	2
당위양태		명령형 종결어미	-아/어	1
			-라니까	1
			-(으)렴	1
-오	1			
문법적 연어	-어 보다	2		
M→∅	동적양태	생략	/	31
	당위양태			2
	인식양태			5

<표 3>에 따르면 세 가지 양태 유형의 ‘要’는 공통적으로 M과 M'으로의 번역, 그리고 생략(∅)이 모두 관찰되나 NM에서는 유형 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각 번역 범주에 따른 세부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응 번역(M→M) 범주이다. 동적양태 ‘要’는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문법적 연어 등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며 <표 2>의 대응 양태 표현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위양태의 ‘要’는 강한 의무 표지인 ‘-아/어/여야 하다/되다’와 종결어미 ‘-아/어/여야지’로 나타났고, 인식양태의 ‘要’는 선어말어미 ‘-겠-’과 문법적 연어 ‘-(으)르 것 같다’, ‘-(으)르 것이다’ 등으로 실현되

었다. 이는 번역자가 각 양태의 고유한 의미망을 훼손하지 않고 인지적 기본값에 충실하게 번역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이된 양태 표현으로의 번역( $M \rightarrow M'$ ) 범주이다. 여기서는 ‘要’가 지닌 양태 의미의 초점이 이동하거나 확실성 정도가 변화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동적양태의 ‘要’가 ‘-아/어/여야 하다/되다’와 같이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번역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주어의 행위가 단순한 바람의 차원을 넘어 상황적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문의 바람을 의무의 의미로 전환하여 번역한 것이며, 원작 특유의 억압적인 위계와 강압적 상황이 번역 과정에 화용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식양태의 ‘要’가 ‘-(으)려나 보다’, ‘-(으)르지도 모르다’와 같은 문법적 연어로 실현된 사례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확신도를 낮추고 추측의 여지를 남겨 두려는 화자의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비양태적 표현으로의 전환( $M \rightarrow NM$ ) 범주이다. 유형 간 차이가 뚜렷한 이 범주는 동적양태와 당위양태의 ‘要’에서만 관찰되었다. 빈도가 가장 높은 동적양태의 ‘要’는 한국어 번역 양상에서도 가장 큰 다양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 하다’와 같은 사역 구문, 청유형 ‘-자-’를 활용하는 간접 인용문, 관형사형 ‘-(으)르’ 등 여러 비양태적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동적양태의 ‘要’가 지닌 주어의 내적 심리가 명시적인 양태 표지로 남기보다는 희곡 대화 특유의 행위 유발, 제안, 사건의 배경화 등 구체적인 담화적, 구문적 기능으로 전환되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위양태의 ‘要’가 명령형 종결어미나 ‘-어 보다’로 번역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어의 명령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쓰인다. 이는 수행 요구 및 권고를 핵심 의미로 지니는 당위양태 ‘要’와 기능적으로 상응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법과 양태 표현이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고영근(2007, p. 30)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넷째, 양태 표지의 생략( $M \rightarrow \emptyset$ ) 범주이다. 인식양태의 ‘要’는 NM으로 번역된 경우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생략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략( $\emptyset$ )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은 인식양태 ‘要’가 지닌 필연성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맥락이나 시간 및 양태 부사와 같은 다른 어휘적 표지에 의해 ‘要’의 필연성이 충분히 드러날 경우, 번역자가 정보의 중복

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생략을 단행함으로써 최적의 적합성을 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 4.2 번역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네 가지 번역 범주에 따라 구체적인 번역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번역자가 ‘要’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단순히 ‘최소 노력’이 요구되는 실현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기꺼이 추가적인 인지적 비용을 투입한 화용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선택이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재현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4.2.1 대응 번역

양태 표현 번역에 있어 대응 번역은 원문의 양태 표현이 도착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양태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합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는 번역자가 ‘要’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적합성을 달성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3>

ST 周冲: 爸爸, 怎麼魯大海還在這兒等著要見您呢?

TT 조우충: 아버지, 그럼 루다하이는 왜 아직 여기서 아버지를 비려고 하는 거죠?

<예문 4>

ST 周樸園: 就這麼跑了麼?

周冲: (抑制著自己, 走回去) 是, 爸, 我要走了, 您有事吩咐麼?

TT 조우푸위안: 그렇게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냐?

조우충: (스스로를 억누르며 다시 돌아가서) 네, 아버지. 저 가 보겠어요. 다른 시키실 일 있으세요?

<예문 5>

ST 姑乙: (有興趣地望著他們) 對了, 叫姐姐給妳講笑話, (指著火) 坐在火旁邊講, 兩個人一塊兒。

弟弟: 不, 我要坐這個小凳子! (指中門左櫃前的小矮凳)

TT 수녀 을: (흥미로운 듯 돌을 쳐다보며) 그래. 누나가 재미난 얘기 해

준대. (난로를 가리키며) 난롯가에 앉아서 얘기해. 둘이 함께.  
동생. 아니요. 전 이 작은 의자에 앉을래요! (가운데 문 왼쪽 장 앞에 놓인 작고 나지막한 의자를 가리킨다.)

<예문 3~5>의 ‘要’는 모두 동적양태에 속하며 한국어 번역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양태 표현으로 실현된 사례이다. 우선 <예문 3>의 ‘要’는 주어 루다하이가 화자의 아버지를 만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TT에서는 이를 3인칭 주체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문법적 연어 ‘-려고 하다’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예문 4>의 ‘要’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질책에 위축된 조우충이 자리를 뜨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를 번역한 한국어 선어말어미 ‘-겠-’은 화자의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뒷사람에게 겸양을 표하는 화용적 기능을 지닌다. 즉 번역자는 ‘-겠-’을 활용하여 억압적인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심리를 도착어에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반면 <예문 5>의 ‘要’는 동생이 작은 의자에 앉겠다는 선택적 의사와 고집을 드러내는 것으로 종결어미 ‘-(으)리라’로 번역되었다. ‘-(으)리라’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즉흥적인 의지나 선호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어린 동생의 특성과 발화 상황을 적절하게 포착한 번역으로 평가된다.

<예문 6>

ST 周萍: (無辦法) 唉! (看表) 不早了, 給我信吧, 我還要收拾東西呢.

TT 조우평: (어찌할 방법이 없어) 참! (시계를 보며) 시간이 없어요.  
편지 주세요. 짐도 챙겨야 하고요.

<예문 7>

ST 姑乙: 好, 妳等一等, (從牆角拿一把雨傘) 外頭怕要下雪, 妳要這一把雨傘吧.

TT 수녀 을: 네, 잠깐만요. (구석에서 우산을 들고 나와) 밖에 눈이 내릴 것 같아요. 이 우산 가지고 가세요.

<예문 6>과 <예문 7>은 각각 당위양태와 인식양태의 ‘要’가 한국어의 대응 표지로 번역된 사례이다. 먼저 <예문 6>의 ‘要’는 화자 조우평이 발화 시점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외적 상황을 전제하고 짐을 정리해야 한다는 강

한 의무를 나타낸다. TT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강한 당위성을 지닌 문법적 연어 ‘-아/어/여야 하다’로 번역하였다. 이를 통해 그 자리를 황급히 모면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압박감과 절박한 심리를 등가적으로 재현하였다. 이와 달리 <예문 7>의 ‘要’는 날씨 변화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인식에 근거하여 내리는 주관적 추측을 나타낸다. TT에서는 ‘눈이 내리.’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론적 심리 태도를 한국어의 대표적인 대응표지 중 하나인 ‘-(으)르 것 같다’로 번역하여 원문의 예측 기능을 자연스럽게 실현하였다.

#### 4.2.2 전이된 양태 표현으로의 번역

‘전이된 양태 표현으로의 번역’은 원문의 양태 표현이 도착어에서 전형적인 대응 표현이 아닌 다소 다른 의미나 뉘앙스를 지닌 한국어 양태 표현으로 실현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8>

ST 魯四鳳: 您聽錯了把; 哥哥說他今天自己要見老爺, 不是找您求情來的。

TT 루쓰핑: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오빠는 오늘 나리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려는 게 아니고.

<예문 9>

ST 周樸園: (忽然嚴厲地) 妳來幹什麼?

魯侍萍: 不是我要來的。

TT 조우푸위안: (갑자기 야멸차게) 여긴 뭐하러 온 거요?

루쓰핑: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문 8-9>는 동적양태 ‘要’의 번역 사례이다. 우선 <예문 8>의 ‘要’는 주어인 ‘오빠’가 ‘나리’를 만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TT에서는 이를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러’로 번역하여 주어의 내적 ‘의도’를 이동행위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실현하였다. 이는 화자가 주어의 방문 이유를 설명하는 발화 맥락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의미의 초점을 목적성으로 이동시킨 화용적 조율로 볼 수 있다. 한편, <예문 9>의 ‘要’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화자는 ‘不是……的(…게 아니다)’라는 부정 강조 구문을 통해 자신의 방문이 본인의 능동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항변하고

있다. TT에서는 이를 희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 문법적 연어 ‘-고 싶다’로 번역하였다. 즉, ‘要’의 굳은 의지를 ‘-고 싶다’라는 심리적 욕구의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화자의 방문이 외적 요인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했음을 청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효과를 보였다.

<예문 10>

ST 魯四鳳: (輕蔑地看著她的父親, 歎了一口氣) 好, 您歇歇吧, 我要上樓給太太送藥去了。(端起了藥碗向左邊飯廳走)

TT 루쓰펑: (경멸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다가, 한숨을 쉰다.) 좋아요, 좀 쉬세요. 위층 마님께 약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약그릇을 들고 왼쪽 식당으로 간다.)

<예문 11>

ST 周萍: 不, 四鳳, 我要見妳, 今天晚上, 我一定要見妳, ……

TT 조우펑: 안 돼, 쓰펑 난 널 봐야 해, 오늘 밤에 반드시 만나야 한단 말이야. ……

<예문 10~11>의 ‘要’는 동적양태에 속하지만 모두 당위성을 지닌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되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더욱 부각한 사례이다. <예문 10>의 ST에서 ‘要’는 화자의 행위 의도를 나타낸다. 맥락상 루쓰펑은 아버지를 경멸하며 이 불편한 대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 TT는 이를 ‘-아야겠-’으로 번역하여 화자의 행위를 단순한 의도가 아닌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화자의 자발적인 의도를 상황적 의무로 재구성함으로써 읽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동시에 자리를 피할 합리적인 명분까지 확보한 고도의 화용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예문 11>의 ST에서 ‘要’는 청자를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강렬한 열망과 결심을 반복적으로 표출한다. TT는 이를 ‘-아야 하다’로 옮겨 화자의 주관적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객관적 의무의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번역은 화자의 절박한 심리와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 상태를 강조하며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말을 단순한 소망이 아닌 거절하기 힘든 강압적 요구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두 사례는 앞서 4.1절의 정량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작 특유의 억압적인 위계와 강압적 상황이 번역 과정에 화용적으로 투영된 결과임을 잘 보여준다.

<예문 12>

ST 周萍: 不一定, 也許兩年, 也許三年。哦, 這屋子怎麼悶氣得很。

周冲: 窗戶已經打開了。——我想, 大概是大雨要來了。

TT 조우평: 글썽요. 이 년이나 삼 년? 아니, 이 방은 왜 이리 답답하지?

조우충: 창문은 열었어. ....아마도 비가 한바탕 오려나 봐.

<예문 13>

ST 魯四鳳: 這邊的事我早晚是要14)走的。

——太太, 說不定今天要辭掉我。

TT 루쓰평: 여기 일은 나도 조만간 그만둘 것 같아요.

.....마님께서 어찌면 오늘 날 내보내실지도 몰라요.

<예문 12~13>은 화자가 인지한 상황을 근거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인식양태 ‘要’의 확신도가 화용적 맥락에 따라 조율된 사례이다. <예문 12>는 답답한 공기를 단서로 비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TT는 사건 발생의 조짐을 나타내는 ‘-(으)려’와 시각적 관찰에 의한 추측인 ‘-나 보다’가 결합된 ‘-(으)려나 보다’를 사용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살렸다. 만약 이를 인지적 기본값인 ‘-(으)르 것 같다’로 옮겼다면 원문에 내포된 ‘사건의 임박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예문 13>은 “說不定(어찌면)”과 호응하여 해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상황이다. TT는 이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으)르지도 모르다’로 번역하여 단정적인 예측을 피하고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要’가 필연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더라도 번역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맥락과 인물의 심리에 따라 확실성의 강도가 세밀하게 조율되어 유연하게 실현됨을 입증한다.

4.2.3 비양태적 표현으로의 전환

본 절에서는 전형적인 양태 표지를 탈피하여 아예 비양태적 표현으로 전환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는 번역자가 원문 ‘要’의 양태 의미를 서술적 정보로 구문 내에 통합시키거나 명령, 청유 등의 화행(speech act)으로 전환함으로써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

14) 앞문장의 ‘要’도 양태조동사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번역문은 본 절의 주제인 ‘전 이된 양태 표현’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분석하지 않았다.

례는 다음과 같다.

<예문 14>

ST 周萍: 好吧。——妳沒有事麼？

魯貴: 沒事，沒事，我只跟您商量點閑拌兒。您知道，四鳳的媽來了，樓上的太太要見她，……

TT 조우핑: 알았네. ……다른 일은 없나?

루구이: 없어요, 없어. 그저 사소한 일을 좀 상의드리려고. 아시다시피 쓰펑 어머니가 왔어요. 윗층 마님이 보자고 하셔서…….

<예문 15>

ST 周樸園: 那麼，我先說我的意思。妳聽著，魯貴我現在要辭退的……

TT 조우푸위안: 그럼, 먼저 내 생각을 말해 보리다. 루구이를 지금 당장 그만두게 하고……

<예문 16>

ST 周冲: 媽，我要告訴您一件事，——不，我要跟您商量一件事。

TT 조우충: 엄마,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아니,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예문 14>에서 ST의 “樓上的太太要見她”는 화자 루구이가 조우핑에게 마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여기서 ‘要’는 권위자인 마님의 의사에 의해 쓰펑의 어머니를 만나는 행위가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TT는 이를 간접 인용문 ‘-자고 하-’와 높임 표지 ‘-시-’를 결합하여 번역함으로써 ‘要’의 양태 의미를 청유 발화의 객관적 보고로 전환하였다. 이는 마님의 요구를 객관적 사실로 제시하여 루구이가 조우핑에게 화제를 꺼내는 타당한 근거로 기능하게 한다.

<예문 15>의 조우푸위안은 ‘要’를 사용하여 루구이를 해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 TT는 사역 구문 ‘-게 하다’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적 의지가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의지의 표출을 넘어 구체적인 조치를 통보하는 방식의 번역은 타인의 반론을 원천 차단하는 조우푸위안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한다.

<예문 16>은 주관적 의지를 나타내는 ‘要’가 관형사형 어미 ‘-(으)르’로 실현된 사례이다. ST의 화자는 “我要告訴…”와 “我要跟您商量…”를 통해 받

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TT는 이를 ‘얘기할 게’, ‘상의드릴 일이’와 같이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우회하였다. 남기심 등(2019, p. 395)에 따르면 관형사형 어미 ‘-(으)르’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 ‘-겠-’과 달리 양태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즉, TT는 화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대화할 화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하는 진술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윗사람인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려는 한국어의 화행적 관습이 반영된 번역이다.

<예문 17>

ST 鲁侍萍: 孩子, 妳要說, 妳要說。假若妳忘了媽的話, ——

TT 루스핑: 얘야, 말해, 말하라니까. 만약 네가 엄마 말을 어기면…….

<예문 18>

ST 周蘩漪: 沖兒, 我的好孩子。剛才還是好好的, 妳怎麼會死, 妳怎麼會死得這樣慘?

周樸園: (已進來) 妳要靜一靜。(擦眼淚)

TT 조우완이: (들어와서도 마른 울음을 운다.) 충, 우리 착한 아들.

방금 까지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리 참혹하게?

조우푸위안: (이미 들어와) 좀 진정하시오. (눈물을 닦는다.)

<예문 19>

ST 魯四鳳: 妳看妳又扯到別處。萍, 妳不要扯, 妳現在到底對我怎麼樣? 妳要跟我說明白。

TT 루스핑: 그거 봐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핑, 쓸데없는 얘기 말고, 도대체 이제 날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예문 17~19>에서 밑줄 친 ‘要’는 모두 의무를 나타내는 당위양태이지만 TT에서는 지시적 화행인 명령형 종결어미나 완곡한 축구의 표현으로 전환되었다. 먼저 <예문 17-18>은 당위양태 ‘要’가 명령형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예문 17>의 화자는 “妳要說(말해야 한다)”를 반복하여 강한 요구를 드러낸다. TT는 이를 해체 “말해”와 재축의 의미를 지닌 “말하라니까”로 점층적으로 번역하여 침묵하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과 강제성을 역동적으로 살려냈다. 반면 <예문 18>의 “妳要靜一靜(진정해야 한다)”는 비극적 상황에서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권고에 가까운 약한 의무이다. 하지만 TT는 하오체

명령형인 ‘-오’를 택해 번역함으로써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격식을 잃지 않으려는 조우푸위안의 냉혹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한편 <예문 19>는 당위양태의 ‘要’가 완곡한 촉구 표현 ‘-어 보다’로 번역된 경우이다. ST는 하녀인 루쓰핑이 연인이자 도련님인 조우핑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이곳의 ‘要’는 강한 의무를 내포하지만 TT는 이를 ‘-어 봐요’로 옮겨 시도나 권유의 의미로 부드럽게 전환하였다. 만약 ST의 강한 의무를 직설적 명령으로 번역했다면 당시의 엄격한 신분 질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번역자는 청자의 체면을 고려한 ‘-어 보다’를 채택함으로써 루쓰핑의 조심스러운 성격과 하위 주체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적절히 구현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 4.2.4 양태 표지의 생략

번역 과정에서는 도착어의 문법적 제약이나 화용적 자연스러움, 그리고 담화의 간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생략하는 방법이 빈번하게 채택된다. 양태 번역에 있어 이러한 생략은 TT의 유창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ST의 양태 의미와 대인적 효과를 약화시켜 원작의 인물 형상과 주제 구현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要’가 생략된 양상을 텍스트의 자연스러움을 제고하는 ‘화용·구문적 생략’과 의미를 훼손하는 ‘손실적 생략’으로 나누어 고찰한다.<sup>15)</sup> 먼저 <예문 20~23>을 통해 맥락적 자연스러움과 도착어의 구문적 특성을 고려한 ‘화용·구문적 생략’에 대해 살펴본다.

<예문 20>

ST 姑甲: (自己以爲明白地) 所以周先生每次來看他太太來, 總要問一問樓下的。

TT 수녀 갑: (자신은 분명하게 안다는 듯) 그래서 조우 선생님이 부인을 보러 올 때마다 항상 아래층 부인에 대해 물어 보죠.

15) 양태 표지가 생략된 사례 중 맥락상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Ø’로 표기하였으나 문장 구조의 변형 등으로 인해 대응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구문의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예문 21>

ST 周藝漪: 這是他頂喜歡的衣櫃, 又拿來了。(歎氣) 什麼事自然要依著他, 他是什麼都不肯將就的。

TT 조우관이: 그이가 제일 좋아하는 옷장이지. 또 가지고 왔구나.  
(한숨을 쉬며) 뭐든 자기 맘대로지. 조금도 바꾸려 하질 않아.

<예문 22>

ST 周樸園: (眼翻上來)妳知道社會是什麼? 妳讀過幾本關於社會經濟的書? 我記得我在德國念書的時候, 對於這方面, 我自命比妳這種半瓶醋的社會思想要徹底得多!

TT 조우푸위안: (눈을 부라리며) 네가 사회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해? 너 사회 경제에 관한 책 몇 권이나 읽었니? 내가 독일서 공부할 때 이미 그 방면에 대해서는 너 같은 애송이들 사회사상에 비하면 훨씬 철저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예문 23>

ST 魯貴: 可是這怪誰? 妳把人家罵了, 人家一氣, 當然就把我們辭了。誰叫我是妳的爸爸呢? 大海, 妳心裏想想, 我這麼大年紀, 要跟妳餓死; 我要是餓死, 妳是哪壹點對得起我?

TT 루구이: 누굴 탓하겠나? 네가 욕을 해 댔으니, 그네들도 화가 났겠지. 우릴 해고하는 것도 당연해. 누가 나한테 네 아버지라고 하던? 다 하이야, 생각 좀 해 봐라.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너랑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죽으면 너 나한테 얼굴 들 수 있겠나?

<예문 20>에서 ‘要’가 빈도부사 ‘總(늘)’과 결합된 ‘總要’는 ‘每次(매번)’와 호응하여 주어의 반복적인 습관이나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번역자는 이를 부사 ‘항상’으로 번역하면서 양태 표지 자체는 생략하였다. 이는 ‘올 때마다’, ‘항상’이라는 부사어만으로도 행위의 빈도와 습관성이 충분히 전달된다고 판단하여 서술의 간결성을 택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 21>의 ST “什麼事自然要依著他”는 ‘모든 일은 으레 그를 따라야 한다’와 같이 ‘要’의 양태 의미를 고수하여 직역하면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에 번역자는 의무 표지 ‘要’를 생략하고 “뭐든 자기 맘대로지”라는 상태 서술로 의역하였다. 이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문의 함축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확보한 적절한 번역으로 평가된다.

한편, <예문 22~23>은 한국어의 구문적 특성과 표현 습관을 고려해 인

식양태 ‘要’가 생략된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예문 22>는 ST의 비교 구문 내에서 정도를 강조하는 ‘要’가 한국어 구문과의 차이로 인해 생략된 경우이다. ST의 ‘比……要’ 구문은 주어의 속성이 비교 대상보다 월등함을 강조하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나 한국어 비교 구문에는 이에 대응하는 양태 표지가 없다. 따라서 번역자는 ‘要’를 직역하는 대신 정도 부사 ‘훨씬’으로 의미를 보완하여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확보하였다. <예문 23>은 불행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예측을 나타내는 ‘要’가 관용적 상태 표현으로 전환되며 생략된 사례이다. ST의 “要跟著妳餓死”에서 ‘要’는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화자의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 TT는 이에 대응하는 추측 양태 표현을 덧붙이는 대신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택하였다. 이는 화자의 주관적 예측을 절박한 상황 묘사로 전환함으로써 양태 표지의 잉여적 번역을 피하고 구어적 뉘앙스를 살려낸 유연한 번역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에 <예문 24~25>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손실적 생략’에 대해 살펴본다.

<예문 24>

ST 魯大海: (對仆人) 妳們這些混帳東西, 放開我。我**要**說, 妳故意淹死了兩千二百個小工, 每壹個小工的性命妳扣三百塊錢! 姓周的, 妳發的是絕子絕孫的昧心財!

TT 루다하이: (하인들에게) 이 나쁜 놈들, 이거 놔! **0** 당신은 고의로 인부 2200명을 익사시키고, 한 목숨당 300원씩 빼먹었어! 그래, 당신이 모은 건 집안의 씨를 말릴 부정한 재산이야!

TT1<sup>16)</sup>: 나 **말할 거야**. / 나 **말하야겠어**.

<예문 25>

ST 周萍: (苦惱地打著自己的頭) 哦, 我恨我自己, 我恨, 我恨我爲什麼**要**活著。

TT 조우평: (괴로워서 자기 머리를 때리며) 아, 난 나 자신이 미워. 밑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증오스러워.

TT1: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원망스러워.

16) TT1은 필자가 ST ‘要’의 양태 의미를 복원하여 제시한 제안 번역이다.

<예문 24>에서 노동자 대표인 루다하이가 자본가인 조우푸위안을 향해 외치는 “我要說(나는 말하겠다)”는 자신을 끌어내려는 물리적 억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강력한 주관적 의지의 표출이다. 그러나 TT는 이 발화를 완전히 생략함으로써 인물의 능동적 행위성과 해당 장면의 극적 긴장감을 크게 약화시켰다. 만약 TTI과 같이 “나 말할 거야” 혹은 “나 말해야겠어”로 번역하여 양태 의미를 복원했다면 자본가의 폭력에 맞서는 루다하이의 반항적 기질이 훨씬 선명하게 재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손실 양상은 당위양태 ‘要’가 사용된 <예문 25>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조우펑의 대사 “我恨我爲什麼要活着”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억지로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비자발적 숙명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이다. 하지만 TT는 이를 “살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 명제로 번역하여 ST에 갖든 강제성의 의미를 소거하였다. 이 또한 TTI과 같이 당위성을 살려 번역했으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절망하는 인물의 심리적 깊이가 TT의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차오위의 희곡 『雷雨』와 오수경 번역본의 대화문에 나타난 다의적 양태조동사 ‘要’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번역문에서 재현된 양태 의미가 등장인물의 성격 형상화와 극적 효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要’의 부정형과 ‘就要’를 제외한 총 150건의 사례를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태조동사 ‘要’는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기계적인 일대일 대응을 넘어 다양한 층위의 표현으로 실현되었다. 분석 결과, ‘要’가 전형적인 대응 표지로 번역된 사례(M→M)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번역의 인지적 기본값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례에서 ‘要’는 원문과 다소 다른 의미나 뉘앙스로 전이된 양태 표현(M→M'), 사역 구문이나 관형사형 ‘-(으)르’ 등 비양태적 표현으로의 전환(M→NM), 그리고 생략(M→∅) 등

의 역동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要’의 번역이 원문의 맥락과 도착어의 문법적 제약, 화형적 관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재구성 과정임을 시사한다.

둘째,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M'와 NM은 등장인물의 성격 형상화 및 원작의 극적 긴장감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번역자는 추가적인 인지적 처리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적양태를 당위양태로 격상시키거나 강한 의무를 완곡한 권유로 순화하였다. 이는 화자가 행위의 합리적 명분을 확보하거나 억압적인 수직적 위계 속에서 청자의 체면을 배려하기 위한 고도의 화용적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식양태가 불확실한 추측으로 조율된 사례 역시 단정을 유보하려는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셋째, ‘要’의 생략(0)은 텍스트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화용·구문적 생략’과 의미를 훼손하는 ‘손실적 생략’으로 구분된다. 도착어의 표현 습관에 따라 ‘要’의 의미가 다른 부사어나 관용 표현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경우 생략은 잉여적 서술을 피하고 대화의 유창성을 높이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반면, 억압에 맞서는 인물의 강력한 저항 의지나 숙명적 비애를 담은 ‘要’가 생략된 경우에는 인물의 능동적 행위성과 서사의 비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번역자는 맥락적 효과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손실적 생략’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중·한 희곡 번역에서 양태조동사 ‘要’가 단순한 문법 표지를 넘어 등장인물의 태도와 사회적 관계 및 서사의 전개를 구축하는 중요한 담화 표지로 기능함을 입증하였다. 성공적인 양태 번역을 위해 번역자는 ‘要’가 지닌 다의적 속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도착어인 한국어의 문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 발화 상황, 인물 간의 위계 관계 등 텍스트의 화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양태조동사 ‘要’에 대한 기존의 형태·통사론적 대조를 넘어, 실제 번역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 실현 양상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체계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적합성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자의 처리 비용과 맥락적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要’가 인물 성격과 담화 상황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규명함으로써 양태 번역을 역동적인 의사소통과

정으로 조명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을 ‘要’의 긍정 형식과 단일 희곡 작품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부정 형식 및 다양한 장르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한중 양태 번역 연구 및 실천적 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曹禺. (2014). 雷雨 [Thunderstorm]. 人民文學出版社.  
曹禺. (2016). 뇌우 (오수경, 번역). 민음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34)

### <2차 자료>

- 고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보정판). 대학사.  
국립국어원. (n.d.). -려고. 표준국어대사전. 2026. 2. 2. 검색,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9620&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9620&searchKeywordTo=3)  
김혜경. (2012). 현대중국어 양상사(Modal) ‘要’에 관한 소고. 중국언어연구, 40, 83-109.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 (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박성하. (2015). 현대중국어 ‘要’의 양태기능과 문법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대학사.  
서수경. (2010). 문학번역의 양태(Modality) 표현 번역 양상 연구 — 소설 『모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엄녀. (2010).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왕효단. (2020). 한국어 ‘-겠-’, ‘-(으)ㄴ 것이-’와 중국어 ‘要’, ‘會’의 대조 연구: 양태적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장경희. (2014). 한·중 양태 표현 대조 분석 연구: 대조분석 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담화·인지언어학회 2014년 가을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6-5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99998>
- 장경희. (2017). 추측 표현의 한·중 대응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미홍. (2021). 한·중 양태 표현의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주립. (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 표현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郭昭軍, 尹美子. (2008). 助動詞“要”的模態多義性及其制約因素 [The modal semantics of auxiliary verb ‘yao’ and the factors in its modality selections]. 漢語學習, 2, 35-40.
- 李寅, 羅選民. (2004). 關聯與翻譯 [Relevance and translation]. 外語與外語教學, 1, 40-42.
- 廉張軍. (2016). 基於平行語料庫的《紅樓夢》情態系統及其英譯研究 [A parallel corpus-based study of the modality system in *Hong Lou Meng* and its three English translations] [博士學位論文]. 西南大學.
- 彭利貞. (2005). 現代漢語情態研究 [On modality of modern Chinese] [博士學位論文]. 復旦大學.
- 田緒軍. (2022). 基於語料庫的《政府工作報告》中情態動詞英譯操作規範研究 [A corpus-based study on the operational norms of English translation of modal verbs in reports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 上海翻譯, 5, 20-25.
- 邢嘉鋒, 王曉靜. (2015). 情態動詞詞義關係與漢英翻譯策略 [Semantic relations of modal verbs and Chinese-English translation strategies]. 上海翻譯, 4, 34-39.
-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Croom Helm.
- Gutt, A. (201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2nd ed.). St. Jerome.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I.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Routledge.

Jaszczolt, K. M. (2006). Defaults in semantics and pragmatics.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bstantive revision May 18, 2022). Retrieved February 2, 2026, fro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efaults-semantics-pragmatics/>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erber, D., & Wilson, D. (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Blackwell.

## A study of the Korean translation patterns of the polysemous Chinese modal auxiliary *yao* (要) in *Thunderstorm*

**Jun Wang**

Departmen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bstract**

Using Relevance Theory as a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olysemous Chinese modal auxiliary *yao* (要) is translated into Korean in Cao Yu's *Thunderstorm* (雷雨),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ragmatic effects of the 2016 Korean translation. To ensure analytical objectivity, 150 instances were selecte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excluding the negative forms of *yao* and *jiuyao* (就要). The findings reveal that *yao* is translated through diverse forms rather than through simple one-to-one correspondence. Direct modal equivalents (M) accounted for 40% of the data, making them the most frequent pattern and the cognitive default in translation.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instances exhibited more dynamic patterns, including shifted modal expressions (M'), non-modal expressions (NM), and omission (Ø). In particular, M' and NM functioned as pragmatic strategies through which the translator, despite additional processing effort, contributed to characterization and intensified dramatic tension. Omission could be divided into two types: pragmatic-syntactic omission, which improves textual fluency, and loss-inducing omission, which weakens characters' agency and the tragic effect.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 Chinese-Korean drama translation, *yao* functions not merely as a grammatical marker but as a pivotal discourse marker that shapes character attitudes and drives the narrative forward. This further underscores that successful modality translation requires not only a precise grasp of the polysemy of *yao* but also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Korean grammatical constraints and the pragmatic context.

**Keywords:** Modal auxiliary *yao* (要); relevance theory; Chinese-Korean translation; drama translation; modal expression translation; play *Thunderstorm* (雷雨)

**키워드:** 양태조동사 ‘要’, 적합성 이론, 중한 번역, 희곡 번역, 양태 표현 번역, 희곡 『雷雨(뇌우)』

왕군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KFLT전공 박사 수료

king95917@naver.com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